

| 이달에 만난사람 |

●●● 이영수 ABC 엔지니어링 사장

양계용 열풍기 A/S 걱정 마세요



90년 후반부터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오던 (주)ABC가 지난해 4월 부도가 났다. 이후 동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힘을 모아 열풍기 기계와 금형 등 기술부문을 인수하여 ABC 열기기를 설립하고 본격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양계용 열풍기 판매회사인 ABC 엔지니어링 대표이며, ABC 열기기 이사인 이영수 사장을 만나 열풍기 산업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이영수
전(주)ABC전국총판대리점대표
현) ABC 엔지니어링 사장
현) ABC 열기기 이사

열풍기 제작 판매에 20년간 매진

“열풍기는 육계 사육하는데 필수적인 기계이며 산란계, 토종닭, 종계 로 사용 비중이 높아지

고 있다”는 이영수 사장이 열풍기 판매 제작을 하게 된 것은 20년 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반달계사에 연탄난로 혹은 가스 육추기를 이용하여 보온을 하였지만 열효

율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버너를 이용한 열기기(일명 대포열풍기)이다.

출시되자 전국 농가에 보급되고, 농가에서 직접 제작해서 사용했는데 열 전달거리가 짧아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런 점을 전 (주)ABC의 기술진이 연구한 끝에 고안한 것이 ABC 열풍기이다.

ABC 열풍기는 계사 대형화에 맞춰 열량이 높은 제품으로 변신하게 되었지만 사용 중에 시행착오도 있었다. 예를 들면 10만cal 열량을 내는 열풍기의 버너 속 노즐 밑 정극봉 부근에 먼지가 끼어서 고장이 잦았다.

고심하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외부의 공기를 호수로 통하여 열풍기 산소흡입기에 연결하는 장치였다.

과열차단 센서로 화재 예방 성공

이영수 사장이 전 (주)ABC 기술진과 제품을 보완하면서 난관에 부딪친 것은 열풍기 과열을 방지하는 문제였다고 한다. 10만cal의 열풍기 화실 온도는 1,000℃이상까지 상승하여 일반철판은 녹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스테인리스 사용하려면 고열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했다.

이사장에 의하면 연구를 거듭하여 직간접으로 열풍기 온도가 150℃만 되면 열이 차단되어 화

재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지만 센서 부착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한다.

지금은 간단한 문제이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이러한 기술 노하우를 무시하고 열 차단 센서 위치를 잘못 선정하거나 A/S 오류로 농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전하게 열풍기 사용하도록 A/S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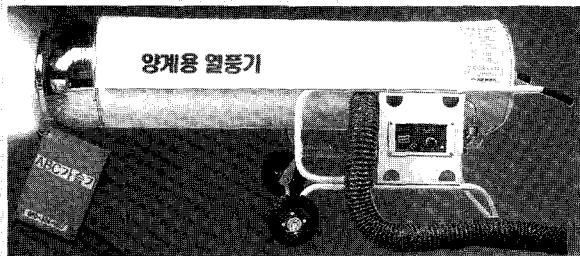
이영수 사장은 농가에서 열풍기를 다룰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전하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풍기 송풍 모터(후앙)는 3년 정도면 모터 속 베어링의 구리스가 말라 교환해주어야 하는데 계속 사용하게 되면 부화로 컨트롤박스에 고장이 많고, 컨트롤박스 청소는 방수 코팅되어서 습기에도 오작동이 없을 만큼 보완되어 있으므로 물청소보다는 먼지만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름 탱크 바닥에 찌꺼기(철분)와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열풍기에 매연이 나오고 노즐이 막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답출 후 연료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든가 사용 전에 기름 속에 물이 섞여 있는지 점검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다.

농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열풍기 오작동시 점검내용으로 온도 표시 계기에 E-1은 기름점검, E-2은 화염감지기 먼지제거, E-3은 과열 센서 점검, E-4은 온도감지 센서 점검이 있다.

이영수 사장은 이 같은 표시를 잘 살펴서 농가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ABC열기기, ABC엔지니어링 A/S 관련 상담전화(월간양계 참조)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정리 | 김종준 과장) **양계**



▲열풍기